

### 김용욱 '윤회론 언급'에 쏟아지는 비판들

김용욱 씨의 불교 윤회론 왜곡 강의를 2월 23일 MBC-TV에서 방영되자 이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MBC 홈페이지에는 3일 동안 300여 편의 글이 이어졌다. 또 <인드라의 세계> 저

자 신용국 씨가 김용욱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날 방영된 강의의 핵심 부분을 요약하고 신용국 씨의 반박문,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유·무형의 불교문화 가운데 수행과 포교의 방편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불교문화 현장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은 수행과 포교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일반인들이 사찰에 머물며 수행 현장을 체험하는 템플 스테이는 불교포교를 위한 새로운 사찰문화가 되리라 본다. 조계종에서 템플 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최근 한국불교 전통문화체험사업단을 발족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의에 맞는다.

템플 스테이 역사는 길지 않다. 2년 전 월드컵 대회로 한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방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한 것이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더하여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돼 가면서 내국인들의 사찰 체험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찾아가지 않고 불러들이는 포교, 아니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포교야말로 불교 포교의 호기가 아닐 수 없다.

### 사찰·체험 모두 '특화' 하자

그러나 템플 스테이는 짧았던 역사 만큼 제대로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템플 스테이를 위한 특화된 사찰 지정과 후원,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전담 사무국과 해외지부 설치, 프로그램의 특성화,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자원봉사자 교육, 전국적인 창구 단원화 등,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까지 갈 길은 아직 멀다.

조용한 수행 환경을 필요로 하는 불교 사찰이 자칫 관광지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템플 스테이를 위한 특화된 사찰이 그래서 필요하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현대인의 정신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데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환경문제도 괴로워 하는 지구인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삶을 꾸려나가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보여주고 가르침을 줄 것인지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꼭 높은 큰 스님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사찰체험이 불쾌한 것이 아닌, 내국인에게 사찰이 있지 못할 확실한 정신적 고향으로, 세계인에게 사찰 스테이가 한국의 신선한 대표적 이미지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자(안본인)

### '연대' 민영

심민섭



금강산 신계사 복원한다!

군대를 휘날리며...

### MBC 도올특강-우리는 누구인가(요약)

### “불교의 윤회라는 것은 하나의 신화적 구성이다”

정도전은 <불씨 잡변(佛氏雜辨)>에서 불교의 윤회설을 비판한 바 있다. 윤회설에 대해 정도전은 동양적 세계관(즉 유학)에 비해 이를 비판했다.



도올 김용욱 씨

동양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혼(魂)·무형적 부분과 백(魄)·유형적 부분이 절묘하게 배합돼 있는 존재다.

이에 대해 정도전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내가 뽑아낸 기운을 그대로 들이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 영혼의 윤회라는 것도 이런 수준의 것이다”라며 인간 영혼의 윤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에 대입하면 고려의 체제도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윤회를 통해 자기 아(我)를 존속시키려는 고집이기 때문이었다.

공적인 장 때문에 잘못 된 것이다. ‘공적인 장으로 내가 올 어딘다’라는

공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새로운 왕조는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불교의 윤회라는 것은 인도문명의 어떤 윤리적 요청에 의해서 나온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신화적’인 구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한 신화적 체계를 사실로 믿고, 종교가 인간을 기만하고 인간을 우매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원래 불교의 윤회는 카르마(업)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당시 윤리적 인과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인도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라고 인간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윤회 이상의 좋은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의 천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양인의 윤리적 보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받아온다.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굳이 형이상학적인 윤회나 천당 등을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윤회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이었다.

## 윤회를 영혼불멸설로 해석... “광대의 경박함이어!”

### 신용국씨의 긴급기고

김용욱 씨가 저술한 정도전 관련 출판물에 대한 MBC 공개특강에서 불교의 윤회론을 비판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논지인즉, 영혼이 윤회하는 불교의 윤회론은 음양의 기(氣)로 우주를 보는 동양의 전통적 우주관인 천지론(天地論)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김용욱 씨는 불교의 윤회론을 영혼불멸설로 이해하였다. 불멸하는 무수한 영혼이 윤회하기 위하여 우주에서 난리를 치는(?) 불교의 윤회론은 천지론적 우주관을 가진 동양의 정통 사상에 배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도전은 동양의 사상을 바로 세우는 국가와 정치를 시도하였던 정치 철학자로 묘사되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그러한 김용욱 씨의 논리가 광대의 경박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주관, 나아가 존재관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에서 그가 보이는 말투며 몸짓의 경박함이다. 진실함이 결여된 경박함으로 대중의 웃음과 박수를 유도한다. 그가 그 경박함 속에서 대중의 박수를 이끌 어 내는 무기는 중국의 한자 부수를 해체하면서 독창적인 뜻을 풀어내는 나름대로의 기발함이었다. 하지만 기발함 속에 의미의 진실함까지 함께 매도하는 것은 지식인의 광대 짓임에 틀림이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잘 알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해석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윤회설을 영혼 불멸설로 해석하는 그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모르겠다. 역사 속에서 불멸하며 이어지는 종교를 성토하기 위해서는 그 종교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추어야

### iMBC·붓다뉴스의 항의글

- ...강의를 보고 혼란스러웠다. 강의 내용 중에는 설득력이 있는 내용도 많았지만 성급한 주장도 많았다. 특히 ‘내가 불교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라며 불교의 윤회사상을 단순하게 풀이하는 모습에서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 ...도올 선생의 윤회사상 비판은 도올의 불교관이라 보기 힘들다. 단지 정도전의 불교

하는 것은 예의를 넘어서 지식인의 의무다. 하지만 김용욱 씨의 불교 해석에서는 그러한 의무나 예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불교는 제법무아와 제행무상의 연기법을 근간으로 한다. 무아의 연기론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불교의 윤회설을 영혼불멸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연기법에서의 존재론과 윤회론은 업식 연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업식은 비존재(非存在)이다. 타(他)와 분리되어 ‘나는 이것이다’라고 구분될 개별 존재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무명(無明)의 업식이며, 따라서 업식 윤회론은 비존재론적 윤회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용욱 씨는 존재론적 윤회론으로 왜곡하였다.

김용욱 씨가 주장하는 음양 천지론에 따르면, 혼(魂)은 우주의 천지, 즉 음양의 기로 산

문이라고 한다. 연기법의 업식 연기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과보를 물려받게 된다. 지은 업보를 항상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둡고 탁한 업식의 삶을 산 사람은 윤회에 있어 더욱 어두워지고 탁한 의식의 삶을 내생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로 인한 내생의 고통 또한 크다고 하는 것이 업식 윤회의 과보이다.



신용국 씨

김용욱 씨는 불교를 모르면서 불교를 폄하했다. 소위 논리 철학자로 자신을 지칭하면서도 자신의 말을 자신이 스스로 뒤집는 논리의 허구를 보여 주었다. 혼(魂)이나 백(魄)은 자신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비존재론적 정의 하에서도 몸인 백이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경우에 혼이 놀라 어쩔 줄 모른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백이 없는 혼은 비존재론적 정의 하였으면서도 백과 무관한 혼의 존재를 주장하는 모순을 보인 것이다. 철저한 사유보다는 확률적 재변에 치중하는 김용욱 씨 같은 지식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논평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용욱 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윤회론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도전과 조선의 성립을 필요 이상으로 미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고려라는 역사

까지도 은연중에 매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식인이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을 위해 논리를 왜곡하는 것은 부패 정치인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새야 불교학자』

마름근성

### 업식연기 바탕 비존재론적 윤회관

### 도올은 ‘존재론적 윤회관’으로 왜곡

화(花)한다는 것이며, 인간이나 생명에게 개별적 윤회라고 할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인중무과(因中無果)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최후의 인(因)으로서 중의 하나인 인중무과(因中無果)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최후의 인(因)으로서 중의 하나인 인중무과(因中無果)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최후의 인(因)으로서 중의 하나인 인중무과(因中無果)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명한 우주의 진실은 영혼 불멸의 인중무과나 혼백 산화의 인중무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개체가 불멸하는 무(無)도 아니고 개체가 천지자연에 산화하는 무(無)도 아니라고 설했다. 그러한 부처님의 법

비판이 왜 필요했고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조선개국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정도전의 정략을 간파했다.

- ...훌륭한 비판이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종교를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도올의 강의는 항상 논리의 중심에 있

##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저 | 인화출판사 | 9,500원

저자 범은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엄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 있다』 (다수의 영혼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 서울 연구소 약도

강북구 수유동  
☎ 02)996-6156



### 「파동명상 요법」을 수련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또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궁극증을 풀기 위해 운명을 읽어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말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대**이다. 현생의 삶은 자신의 전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 예정되어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파동명상요법을 통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적 사건과 영혼적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3월 둘째주, 넷째주 (화~금) ◆ 강의장소: 서울, 부산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포함,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